

Obedience

순종

- 성경 본문** 출애굽기 15:22~27
- 요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
- 찬송** 449장(통 377, 예수 따라가며)
- 이과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선택을 하며 살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II. 생각 넓히기

1. 순종: 정체성의 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사흘 동안 무더운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한다. 그들에게는 그것 외에는 다른 선택 사항이 없어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열 가지의 재앙들을 목도했다. 심지어 몇 일 전에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앞을 가로 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다. 그러한 놀라운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도 했다(출 14-15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와 같이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었음을 반증해 준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롬 8:7 참조).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단물을 마시게 하신 후,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도록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다는 말이다. 그들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여 살던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한 자들로 성장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분명한 표지이다. 따라서 순종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전히 의무와 부담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



2. 순종: 사랑과 믿음의 표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삼상 15:22-23).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지만, 불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불순종을 왜 그토록 싫어하실까?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 14:15)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순종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종은 단순히 그분이 정한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외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내적 문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물을 얻었다. 하지만 그 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음을 발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했다. 사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물에 던지라고 명하셨다. 소위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해결책을 주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대로 순종하였고, 그 결과 마실 수 없던 쓴 물이 단 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뢰에 대한 그분의 기쁨을 단 물로 표현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히 10:6)라고 가르쳐 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3. 순종: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26)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거나,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현대와 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거나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음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고 싶어하신다. 신명기 28:1-2절에는 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셨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यो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그런 자들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약속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통해 어디에나 존재하신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을 사랑하시어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이 복을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III. 생각살기

1.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자연스럽게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 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들 중 한 가지라도 순종하기를 힘써 봅시다.
2.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우리 소그룹이 기여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